

시론



김 선 기

전남도립대 교양학부·문학평론가

우리는 지금 '책맹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책맹'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난 마당이다. 책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읽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독서가 우리 생활에 필요 이상으로 와닿지 않은 도구로 인식된 탓이 아닐까 한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 국민 독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종합독서율은 43.0%로, 10명 중 6명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대비 4.5% 포인트 감소했으며, 1994년 독서 실태 조사(86.8%)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니, 얼얼이 화끈거린다.

대한민국의 독서문화 실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올 예산 가운데 국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책정한 59억8천500만 원을 전액 삭감

혹시, 당신도 '책맹' 아닌가요?

했다. 그리고 지역 서점의 문화 활동 지원과 출판사 대상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등의 관련 예산 100억 원도 뺏박지워버렸다.

게다가 지역 서점 지원 예산 11억 원마저도 없애버려 독서 생태계 파괴에 힘을 보탤다. 이 예산은 그동안 지역 서점이 저자를 초대해 독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각종 문화 사업을 열던 밑천이었다. 지적 교류에 목말랐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서점을 찾았고, 인터넷 서점으로 일할 수 없는 문화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그런데 올해는 그 싹을 모두 잘라버린 것이다.

정부가 올해 독서진흥과 서점, 도서관, 출판 관련 정책을 흔들고 예산 전액을 삭감한 건 '국민은 책을 읽지 말라'는 것이나 진배없다. 독서는 개인의 취미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동체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독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는 국가 미래의 투자 성격이 강해 그 가치성은 매우 크다.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 미래 투자 정책을 입맛에 따라 없애버리고 제 역할을 회피하는 건, 국민의 의식을 퇴행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독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내재해 있어 민주주의를 지행하는 근원이자 원동력이기도 하다.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며, 그 교육

을 완성하는 게 바로 독서다. 결국 독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다. 따라서 독서의 힘은 '위대함'을 넘어 그 가치가 매우 크고도 광활하다. 이것이 독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이유다.

정부가 국민 독서문화에 대한 쇠락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했는지, 부랴부랴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비 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가 들어갔다.

골자는 이렇다. 업무나 육아 등으로 인한 비 독자를 위해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기업-도서관 연결, 공동보육 기관의 독서기반시설과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 또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가족 단위 프로그램과 독서이력 관리를 지원하는 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글쎄, 정부가 호들갑을 떨면서 내민 독서문화진흥정책이 과연 얼마나 국민 생활 속에 녹아들진 의문이다. 문화정책은 기계적·시스템적 규격화나 뺑뺑이에 넣고 친밀감 없는 책어내는 식의 접근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번엔 정부가 내놓은 독서문화정책은 이미 1970-80년대에 우려했던 것들이어서 새로운 게 없다. '책맹의 시대'에 걸맞은 정책이 절실한데...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청년칼럼



강 한 슌

광주 광산구의원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 2022년 1월11일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당 가입 연령 또한 18세에서 16세로 하향됐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청소년·청년의 참정권 확대가 대두되면서 정치권에서 청년은 아주 큰 이슈가 됐다.

최근 국회의 청년위원의 흐름을 살펴보자. 20대 국회에 만 30세 미만 국회의원은 전무했다. 21대 국회에는 30세 미만 국회의원이 2명이었고, 40세 미만 국회의원까지 확대해서 보면 전체 295명 중 11명이었다. OECD 37개국 중에서도 청년의원 비율은 최하위에 머물렀었다.

이번 22대 총선거에서 청년 국회의원 당선자는 14명이다. 물론 30세 미만 국회의원은 없다. 유권자의 청년 비중은 30%가 넘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 당선자의 비중은 4.6% 그쳤다. 국민을 닮은 국회가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평균연령 56.3세의 국회가 얼마나 국민을 닮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청년이 실종된 선거'라고 이야기했다.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 소멸, 높은 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컸던 사회 분위기에 따라 청년 공약은 저출산 대응책이나 민생 정책 안으로 포함됐다. 피부에 와닿는 청년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고민을 하지 않는 악순환이 또 발생했다.

여기 청년 있어요!

이번 총선거에서 30대는 11.26%로 사전투표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였다. 그다음은 1.29%로 20대가 차지했다. 여전히 아쉬운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투표 문화도 있었다.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 또는 만화·웹툰 캐릭터로 투표 인증 용지를 만들어 투표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MZ 세대가 주축이 돼 투표 도장을 찍은 인증 용지를 SNS에 올리며 투표를 독려하는 게 유행이 되었다. 하나의 즐거운 문화가 된 것이다.

청년들이 정치 무관심이었던 것은 낮은 정치 효능감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관심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투표용지를 인증해 투표 독려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청년층이 정치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싸움에 동원되는 존재로만 남게 될 것이다.

현재 청년 세대는 청소년기에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 청년기에는 이태원 참사를 겪은 사회적 재난 세대라고 이야기한다. 일상에서 늘 마주하는 불안감, 기성세대와 사회에 대한 불신이 가슴 깊숙한 곳부터 자리 잡고 있는 세대인 것이다. 누가 청년들의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청년들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얼마를 주는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져주는 책임 정치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청년들의 현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독자투고



정 은 우

아외활동이 증가하고 지역축제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아지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같은 불청객이 어김없이 찾아오곤 한다.

최근 5년간 화재 원인을 분석해보면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주의는 전기적 요인보다 2배, 기계적 요인보다 6배 가량 많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첫째로 담배꽂초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반드시 예방하자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여야 하고, 담배꽂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많은 산불사고가 담배꽂초로 인해 일어나고, 특히 대량 위험물을 취급하는 산업단지에서는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고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할 만큼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

둘째로 불씨·불꽃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촛불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각종 건설 현장에서도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을 하는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가 부주의로 인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작업 전 주변 가연성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화포 4면 이상 설치해 불티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작

업의 마무리 단계까지 확실하게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조리 중이다. 음식물 조리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고, 조리가 완료되면 가스레인지의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즘 가정에서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OFF상태를 확인하거나 타이머 설정 방법으로 깜빡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은 관심 여부의 한 차이이라고 생각한다. 머문 자리를 살펴보고 지나온 곳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따뜻하고 안전한 봄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편의점과 온라인서 밀리는 동네상권의 붕괴 씁쓸

광주지역 중·소형마트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 점유율을 확대하는 편의점에 밀린 영향이 크다. 자주 다닌 가게가 물건이 하나둘 비터니 결국 문 닫힌 광경을 소비자는 씁쓸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세통계포털(TASIS) '100대 생활업종 분석' 결과, 광주 슈퍼마켓 사업자는 2020년 1월 기준 833명, 2021년 842명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2년에는 804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3년에는 792명으로 더 감소했고, 올해 들어 1월 집계된 763명으로 떨어졌다. 이와 다르게 편의점 사업자 수는 2020년 1월 1천51명, 2021년 1천 101명, 2022년 1천200명, 2023년 1천295명, 올해 1월 1천349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편의점 점포 규모도 확장되고 있다. 80평·120평대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파는 상품도 다양화해 없는 게 없다.

마트의 위기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도 무관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조3천470억원으

로 전년 대비 8.3% 늘어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였다.

최근 동네상권의 구조조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광주에서 최근 5년 간 전체의 10% 이상, 90개 슈퍼마켓이 사업을 접었다. 편의점 창업 속도가 슈퍼 폐업 속도를 웃돌면서 인근 지역 내 편의점 간 경쟁마저 치열해졌다. 편의점의 인기는 간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필요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려는 젊은층 1인 가구의 증가와도 맞물려 있다.

중·소형마트는 더 버틸 재간이 없다. 불가항력이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편의점에 고전하고 반품도, 배달도 훨씬 편한 온라인 시장에도 자리를 내주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대형 식자재마트도 우후죽순이다. 고물가·고금리 속 치솟는 인건비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고정비 지출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세대와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에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높다.

5·18 민간행사 오월단체 참여 화합의 축제 될 것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행사위원회에 5·18 단체(부상자회·공모자회·유족회)가 참여한 5·18기념재단, 3단체가 긴급회의를 열고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시민들도 환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화합에 대한 기대도 부풀리고 있다. 실제로 양재혁 유족회장은 갈등을 지속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여드려 사죄한다고 했다.

행사위 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위는 정부 5·18 기념식과 별개로 전야제 등을 기획·실행하는 민간 조직이다. 반쪽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원만한 수습되는 듯해 다행스럽다. 당초에 부상자회는 집행부 구성 등 정상화가 먼저라며, 공모자회는 2·19 대국민공동선언서 사과 요구로 반대했으나 급성화했다. 지난해와 같은 과정 운영이 반복된다면 5·18을 끝없이 예곡·편협하고 극우 보수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줄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도

곳곳에서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만큼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공법단체가 빠진 채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0여년 동안 행사 위에 참여한 3단체다. 민간이 주도하는 기념행사가 공식 인정받은 1988년부터 2022년까지 방향성·구성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해는 특전사동지회가 초청된 2·19 대국민공동선언을 이유로 제명당한 바 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광주의 진정한 5월을 만들어야 한다. 해묵은 갈등을 봉합해야겠다. 정부 주관 5·18 기념식에도 함께 서야 한다. 이미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리 인정받고 있는 5·18이다. 광주에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동단결, 하나로 뭉쳐야 한다. 장기간 대립으로 시민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기념행사위 측도 5·18 단체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풀어야 한다. 올해의 주제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의 취지를 잘 살리길 바란다.

아침물어는 詩

불문을

한혜영

비가 오는 까닭을 따져 묻지 않는 것처럼 지천으로 날린 햇볕도 그러려니 하는 것처럼

슬픔이내게로 오면 묻지 않고 젖을 거다

안개에게 먹혀도 투정이 없는 달처럼 고양이 푸른 눈에 떠도는 전설처럼

슬픔이 기억으로 오면 삼처럼 잠길 거다
(시조집 '뒤통수에 잠깐 빠졌을 뿐입니다', 가히·문학의전당, 2024)



[시의 눈]

몇 해 전에 난 당신과 헤어졌지요. 주변에 알릴 틈도 없었던 이별에 내 슬픔만 두고 떠난 당신을 먼 나라 국경까지 배웅했습니다. 숲속 흐름처럼 눈물은 조용했으나 새벽을 깬던 샘처럼 가슴은 한없이 깊어졌습니다. 햇살이 길기로 쏟아지는 언덕에 당신을 두고 종종 내려왔지요. 그 후 내 일상엔 지친 햇살이, 아니 바늘처럼 추운 자상(刺傷)의 비가 뚫듯이 스며들었어요. '그러려니' 하는 세월을 믿을 뿐, '나'라는 사회에 소속된 내 존재를 특별한 성분으로 규정하지 않을, 그러니까 허, 운명의 룰에 따르기로 한 거지요. 그렇더라도, 지금 그때 일음이 속저리게 밀려옵니다. 나 홀로 입국하길 바라는 당신의 나라엔 '안개'조차 어둡습니다. 고양이 눈에 푸르게 '떠도는 전설'일까요. 뒤집어 지지 않을 봄의 나이트가 또 그러지고 있군요. 당신이 새삼 내려와 내 눈시울을 탐할 때 무인도나 오륙도처럼 잠만 잠겼다 솟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고 묻지 말기요. 내 안에 당신이 부린 그 '불문율'의 짐이니까요. 한혜영 시인은 충남 서산에서 나 1989년 '이동문학연구' 동시조 당선, 1994년 '현대시학' 시 당선, 199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 '태평양을 다리는 세력사'(2002), '올랜드 간다'(2013), 동시집 '치과로 간 빨래집게'(2024) 등이 있습니다. 그는 대상을 모사하되 뜯음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그 고풍(苦悶)과정을 처연히 걸러내는 시인으로, 현재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